

지역난방사업
열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온수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선진 난방시스템

지역냉방사업
플랜트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일대에 냉수를 공급하는 냉방시스템

전력사업
중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사업 부문의 확대·강화

신재생에너지사업
소각열, 메탄가스 등을 회수해 열병합발전 및 냉·난방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오늘은 한국지역난방공사지만
내일은 세계지역난방공사입니다**

온 세상 모두를 위한
친환경에너지부터 신재생에너지·미래에너지사업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NERGY
SYNERGY
2도의 에너지
나눔의 시너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__& 굿네이버스

2015 11+12
vol.147

좋은
이웃

- 기획특집
좋은 이웃으로 일어서다
- 현장이야기
탄자니아 ‘화개장터’에서 만나요
Let’s Change!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다
- 이달의 ‘굿네이버스’
나눔의 시작, 행복의 시작

한국지역난방공사

__& **굿네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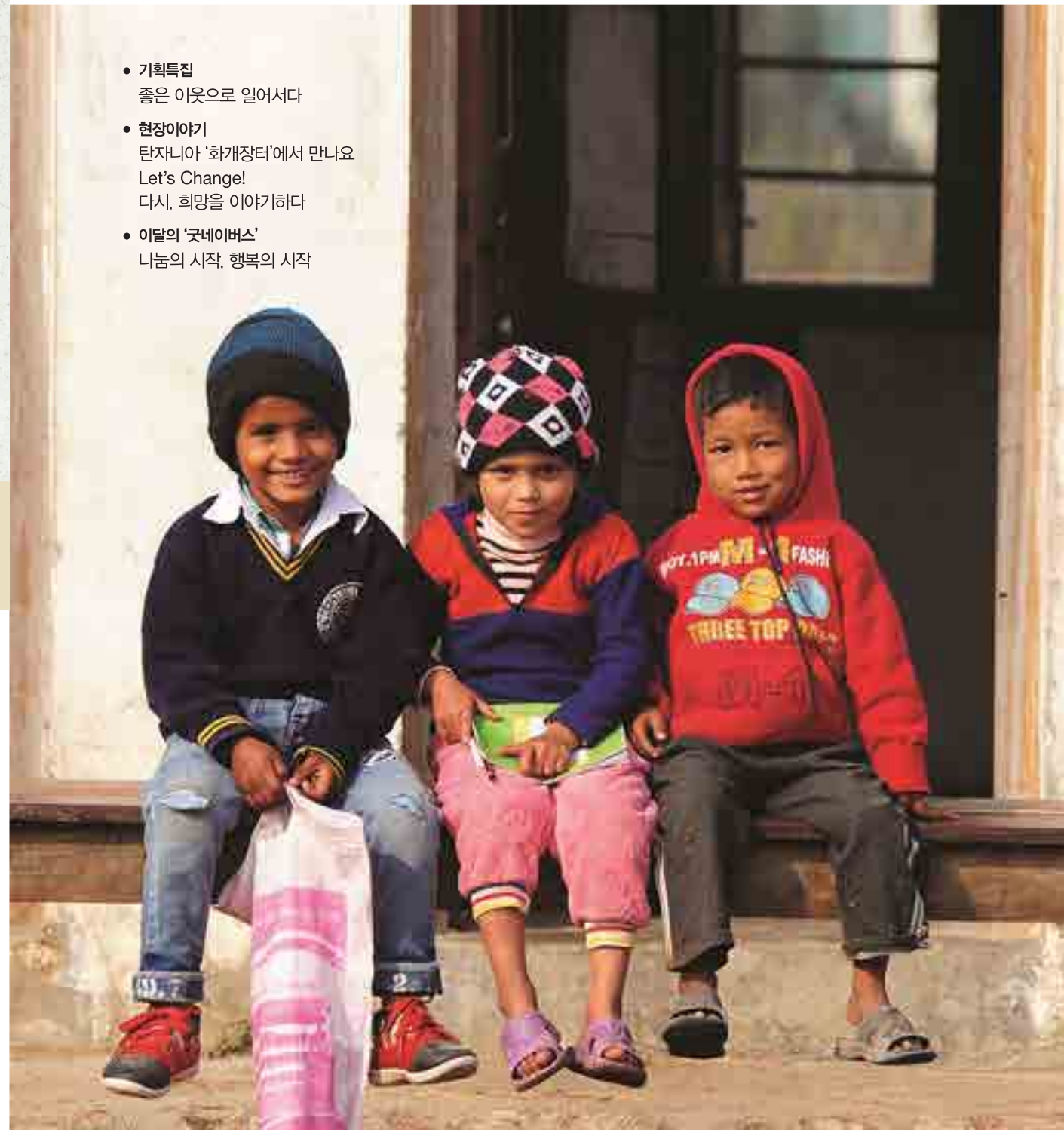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6년부터 굿네이버스, 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함께 빈곤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굿네이버스 본부 02-6717-400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서울본부(서울나눔인성교육센터) **02-812-2040**
 서울강남나눔인성교육센터 02-569-2040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02-3665-5183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842-0094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02-923-5440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02-3157-1391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02-474-1391
 서울동부아동관리지원센터 02-971-1391
 좋은마음센터 서울성동 02-3443-1391
 좋은마음센터 서울동작 02-814-1391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02-2662-6661
인천본부(인천나눔인성교육센터) **032-442-1391**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515-1391
 좋은마음센터 인천서부 032-563-7579
경기1본부(경기나눔인성교육센터) **031-283-1391**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031-245-2448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031-227-131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031-275-6177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031-316-1391
 좋은마음센터 경기안양 031-426-1391
 좋은마음센터 경기평택 031-667-139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031-366-0888
 아주좋은이웃 신리치유센터 031-8004-7676
경기2본부(경기2나눔인성교육센터) **031-908-1391**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031-966-1391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1-874-9100
 좋은마음센터 경기부천 032-611-0857
 좋은마음센터 경기구리남양주 031-524-9922
강원본부(강원나눔인성교육센터) **033-813-8008**
 강원북부나눔인성교육센터 033-256-5391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3-766-1391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256-5391
 강원도아동복지센터 033-762-3462
충청본부(충청나눔인성교육센터) **042-826-9601**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042-254-6790
 충청북아동보호전문기관 043-216-1391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734-6640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635-1106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041-578-2655
 좋은마음센터 대전서부 042-826-0140
 온주종합사회복지관 041-544-7411
전북본부(전북나눔인성교육센터) **063-222-4157**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63-635-1391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63-852-1391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063-283-1391
광주전남본부(광주전남나눔인성교육센터) **062-376-6656**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285-1391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332-1391
 좋은마음센터 광주서부 062-376-1315
 좋은마음센터 전남동부 061-654-7542
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나눔인성교육센터) **053-951-1391**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3-623-1391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284-1391

경북서부아동관리지원센터 054-462-7273
 경북북부아동관리지원센터 054-855-2992
 좋은마음센터 대구동부 053-955-0167
 좋은마음센터 대구서부 053-427-5147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4-744-1901
울산경남본부(울산경남나눔인성교육센터) **055-781-1056**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052-286-4678
 경남서부아동관리지원센터 055-794-1234
 좋은마음센터 경남중부 055-238-1240
 구산종합사회복지관 055-337-4541
부산제주본부(부산나눔인성교육센터) **051-711-5670**
 부산동부아동관리지원센터 051-514-1245
 좋은마음센터 부산서부 051-636-5767
 좋은마음센터 제주 064-805-4200
국제이비스 인터내셔널 82-2-6717-4000
 국제이비스 미국 (LA) 1-877-499-9898
 국제이비스 일본 81-3-6423-1768
 국제이비스 제네바국제협력사무소 41-22-734-1434
아시아권역본부 66-093-948-7095
 국제이비스 방글라데시 880-2-841-1760
 국제이비스 타지키스탄 992-372-33-0668
 국제이비스 네팔 977-1-553-8758
 국제이비스 아프가니스탄 93-20-25-011-68
 국제이비스 캄보디아 855-23-880-557
 국제이비스 베트남 84-4-6281-2257
 국제이비스 스리랑카 94-11-438-1847
 국제이비스 인도네시아 62-21-2957-4249
 국제이비스 미얀마 95-1-531-200

국제이비스 몽골 976-7014-4122
 국제이비스 인도 91-80-2556-4142
 국제이비스 필리핀 63-2-926-2356
 국제이비스 라오스 856-21-415-771
 국제이비스 키르기즈공화국 996-312-891420
아프리카권역본부 705-913-925
 국제이비스 르완다 250-735-769-221
 국제이비스 케냐 254-702-091-580
 국제이비스 에티오피아 251-118-962-388
 국제이비스 이집트 20-2259-7622
 국제이비스 탄자니아 255-732-991-530
 국제이비스 차드 235-6074-8476
 국제이비스 말라위 265-111-741-236
 국제이비스 나제르 227-2035-2247
 국제이비스 잠비아 260-211-238-620
 국제이비스 우간다 256-786-847-377
 국제이비스 모잠비크 258-844-026-386
 국제이비스 카메룬 237-6-565-01583
 국제이비스 파라과이 595-216-245-45
 국제이비스 아이티 509-2943-1773
 국제이비스 칠레 56-2-2664-0716
 국제이비스 도미니카공화국 1809-533-9668
 국제이비스 니카라과 505-5852-8883



좋은 이웃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contents



© 박진희 / Good Neighbors

COVER STORY

하나도 좋고, 둘도 좋지만 셋이면 더욱 좋은 우리, 굿네이버스는 '조합'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지역사회를 지향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od Neighbors



08



16



24



26

05 희망편지

06 나눔 한 컷

연필이 짧아질수록

08 기획특집

Good Change for the World ⑥

좋은 이웃으로 일어서다

14 현장이야기 1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16 현장이야기 2

또 다른 기적을 꿈꾸는 동행

18 현장이야기 3

탄자니아 '화개장터'에서 만나요

20 현장이야기 4

Let's Change!

22 이달의 '굿네이버스'

나눔의 시작, 행복의 시작

24 현장이야기 5

2015 희망TV SBS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다

26 이웃의 이야기

울지마 엄마
이웃의 이야기, 그 후

30 News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이사장 정해원(前 굿네이버스 회장) / 이사 이일하(굿네이버스 회장) 배기수(아주대학교 교수) 이봉주(서울대학교 교수) 박종훈(법무법인 신우 대표 변호사) 배임호(숭실대학교 교수)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감사 조성천(이리중앙교회 담임목사) 장영철(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이사회 회장 이일하(굿네이버스 회장) / 이사 이봉주(서울대학교 교수) 유인중(前 서울시 교육감) 박종훈(법무법인 신우 대표 변호사) 양진욱(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김영호(대명교회 담임목사) / 감사 조성천(이리중앙교회 담임목사) 이명재(일리안초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총대이사 이일하(굿네이버스 회장) 김산순(굿네이버스 자원위원) 김영호(대명교회 담임목사) 김인희(굿네이버스 부회장) 류제천(서울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용삼(진산업 대표) 박종훈(법무법인 신우 대표 변호사) 배기수(아주대학교 교수) 송동욱(광주동림초등학교 교장) 양영애(인제대학교 교수) 양진욱(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엄기선(충북대학교 교수) 유인중(前 서울시 교육감) 유재수(의왕백운초등학교 교장) 이명재(일리안초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봉주(서울대학교 교수) 이슬기(전국 동아리 대표)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 원장) 이정찬(경산봉황초등학교 교장) 이호균(前 굿네이버스 부회장) 정금선(前 굿네이버스 부회장) 조성천(이리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기영(굿미네트워크 회장) 허인정(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대표) *회장 이하 가나다순

발행정보 통권 제147호

발행일 2015년 11월 1일

공동 발행인 정해원, 이일하

편집인 김인희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화 02-6717-4000

팩스 02-6717-4199

디자인 ㈜디자인소호

02-514-5164

재능나눔

사진 김상준, 김태환, 박찬학, 채우룡

일러스트 김보미, 홍원표

캘리그래피 박해옥

'좋은이웃'은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인쇄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후원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이메일 gni@gni.kr

사랑의 ARS 060-700-0200

후원문자 #3004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048577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지로번호 7612925

후원문의 1544-7944

홈페이지 goodneighbors.kr

블로그 gnblog.kr

기부스토어 givestore.kr

후원문의 1544-7944

페이스북 goodneighbors

인스타그램 goodneighbors

트위터 @Good_Neighbors

카카오톡 @굿네이버스

2015 좋은 이웃 콘서트

‘굿네이버스 사진관’



서울

2015년 12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악스코리아(5호선 광나루역)



부산

2015년 12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호선 대연역)

• 2015 좋은 이웃 콘서트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www.goodneighbors.kr)를 참고하세요.

• 좋은 이웃 콘서트는 굿네이버스 정기회원님과 즐거운 공연을 함께하며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말 회원 행사입니다.

방글라데시
밀밭 사업장 아동들

희망편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좋은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굿네이버스 대표단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구촌 빈곤 종식과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이 역사적인 자리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최상위 지위를 가진 국제 NGO로서 함께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전세계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처럼, 우리 단체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 수립을 통해 앞으로도 굿네이버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에 열린 국제 연례회의에서는 해외 사업국 직원들과 함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굿네이버스의 역할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사회개발 현황을 검토하고 교육, 보건, 소득증대 등 분야별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11월에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한 굿네이버스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개소한 아동권리연구소를 통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연구,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회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글로벌 체현전에 이어 연말에는 MBC 특집방송과 연말 캠페인 ‘희망트리’, ‘좋은 이웃 콘서트’ 등 나눔의 현장에서 회원님을 찾아 뵙겠습니다. 좋은 이웃 회원님 모두 남은 한해도 건승하시기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네이버스 회장

이 일 하 드림

나눔 한 톨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네팔 히말라야 어느 시골 학교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이웃의 따뜻한 나눔이
아이들의 마음에 눈처럼 소복이 쌓입니다.
얼어붙은 손에 따뜻한 희망을 쥐어보는 아이들.
연필이 짧아질수록 아이들의 꿈은 쑥쑥 자랍니다.

*캘리그래피는 좋은 이웃 손글씨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박해옥님의 작품입니다.



Good Change for the World ⑥

좋은 이웃으로 일어서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일어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 ‘자립’. 우리는 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어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홀로서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비단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NGO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과 함께 ‘자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꿈꾸는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농자재 공동구매로 서로 돕는 조합원들



변화를 꿈꾸기 시작하다

굿네이버스 해외 사업국에는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소득증대 그룹인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협동조합’으로 더 익숙한 이 조합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업종을 기반으로 축산업, 농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헤토사 지역개발사업장(CDP ;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에는 총 500명의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조직된 헤토사 조합은 2014년 그 규모가 확대되어 현재는 31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6명 정도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소그룹은 일주일에 한번 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각 그룹 대표들은 2주에 한번씩 모여 소그룹별 이슈를 논의하고 밀 생산과 마케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제대로 된 농기구도 없이 소작농으로 근근이 버티던 주민들은 조합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종자와 비료, 제초제 등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한 후, 조합에서 운영하는 저장창고에 두었다가 시장에 판매합니다. 조합원들은 공동 판매 수익으로 초기에 조합에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계를 해결합니다. 점차 수익이 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던 경제적인 여건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삶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전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합에 가입하면서부터 이제는 스스로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추가로 땅을 구입하거나 축산업 등으로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 에티오피아 헤토사 조합원 네제오 보셋 —



① 인도 방갈루루 지역 조합원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베라 씨

② 품질 좋은 커피 열매를 고르는 르완다 기사가라 지역 조합원들

초기 설립 과정에서 굿네이버스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 조합의 운영 전반과 자금 관리는 조합원이 직접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조합 활동을 연계하기도 하는데요. 유명 커피 산지 인근에 위치한 르완다 기사가라 지역에는 굿네이버스가 설립한 커피 가공 사회적기업 'Café de Gisagara'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조합에서 재배한 커피 열매를 좋은 가격에 구입하여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자립을 돕습니다. 제값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납품 당일 현금으로 결제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열매를 납품한 농가에 시장가 보다 높은 가격을 제공하며 조합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Café de Gisagara'는 올해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지원하며 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다

인도 방갈루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베라 씨는 채석장에서 일을 하며 병든 남편과 두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중일 고된 노동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두 아이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늘 채석장 한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굿네이버스 인도 지부 소속 소득증대 조합에 참여하게 된 후,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려 과일과 꽃을 팔기 시작한 사베라 씨.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의 구성원은 대부분 사베라 씨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자립은 단순히 소득이 높아지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은행 업무나 쇼핑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했던 그들은 조합 활동을 계기로 경제, 사회 활동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역량 강화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도 좋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고, 조합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소득증대사업 '조합 운영' 현황

2015년 7월 기준



참여 국가

21개국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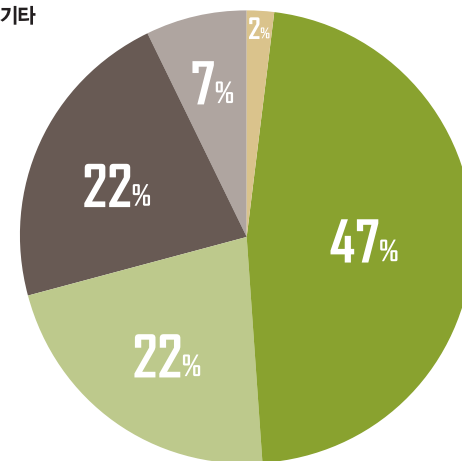
949개

참여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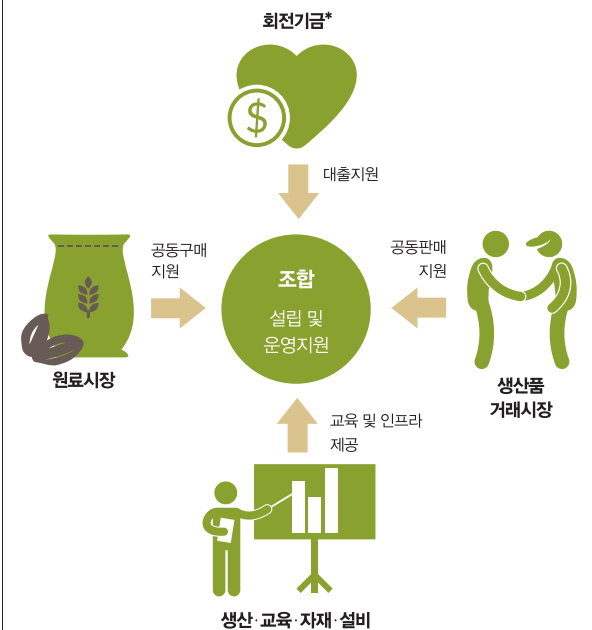
40,090가정

분야별 조합 분포

- 축/수산업
- 농업
- 금융
- 소상공업
- 기타



조합 지원 프로세스



*회전자금 : 지역사회 내 누적, 회전되며 지역 경제활동의 자원이 되는 자금



③ 조합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에티오피아 헤토사 지역 조합원들



④ 조합 참여 후 늘어난 소득으로 양을 키우는 조합원 네제오 씨

우리의 조합을 외치다

에티오피아 헤토사 지역에 처음 조합이 만들어졌던 2011년. 당시 조합원들은 자신이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 지부에서 진행하는 소득증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혜 주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 지부 직원이 조합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헤토사 조합은 누구의 조합입니까?” 조합원들은 “굿네이버스의 조합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합원들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변화는 수많은 워크숍과 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소통의 결과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변화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비전을 공유한 것도 한 몫했습니다. 좋은 변화는 좋은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또한 대다수가 부모였던 조합원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 지부와 조합이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간다는 주인의식이 주민들 마음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조합원들의 목표, 참여, 열정,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조합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와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합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더 큰 비전을 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굿네이버스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굿네이버스가 모든 것을 해주기만 바란다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조합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조합과 함께하면서 비전을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 지부 소득증대 담당직원 에덴 —

자립, 결국은 함께 일어서다

지역사회의 자립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함께 나아갈 이웃들을 모으고 그들의 첫 걸음을 돕습니다. 이후 빈곤과 억압이라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다리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 완성된 다리를 건너는 것 또한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건너기도 하고, 먼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튼튼한 다리를 짓기도 합니다.

“허브 재배와 유통을 위한 조합이 설립된 후,
경제적인 소득을 제외한 큰 변화는 바로 공동체의 발전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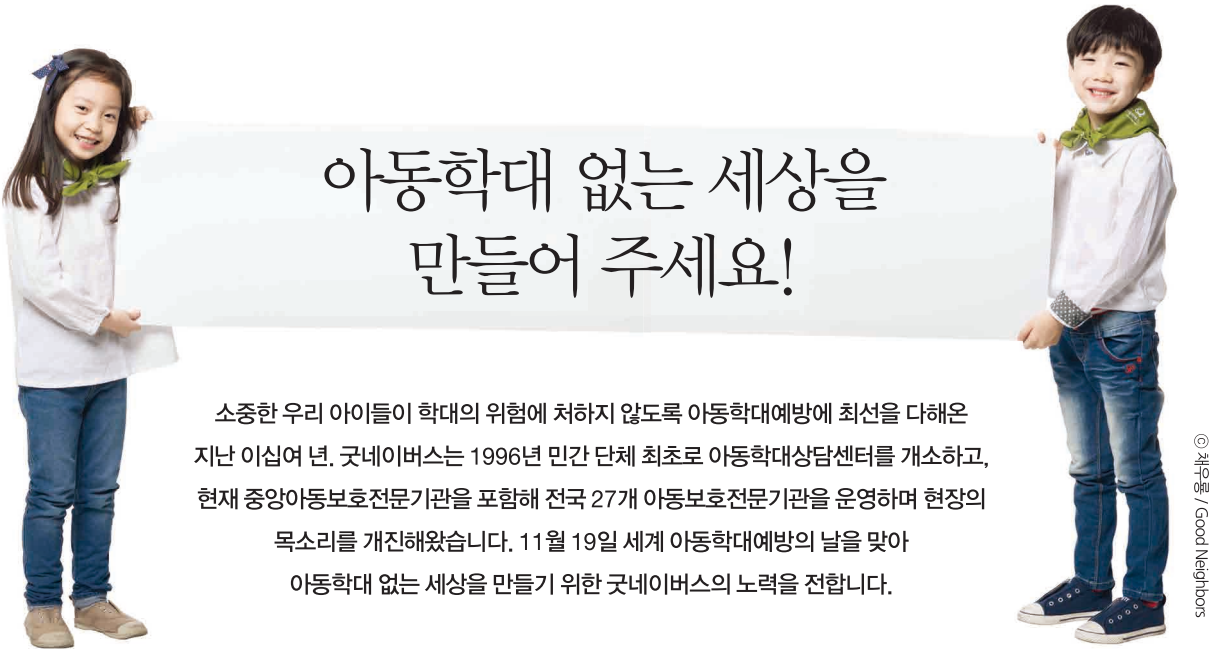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일하는 문화가 바뀌고,
공동체 발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 네팔 무구 지역 조합장 산카 바하두르 부다 —

변화된 지역사회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학교나 우물 같은 시설일까요? 아니면 기술을 익힌 전문가일까요? 시설을 운영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지역사회의 좋은 변화에 귀 기울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공동체. 우리에게 자립이란, 결국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조합원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대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예방에 최선을 다해온 지난 이십여 년. 굿네이비스는 1996년 민간 단체 최초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소하고,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개진해왔습니다.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굿네이비스의 노력을 전합니다.

© 채우름 / Good Neighbors

아동학대처벌법 1년 후, 달라진 현장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일로 분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때마침 걸려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상담원들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달라졌습니다.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절차에 대한 특례가 규정됨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학대행위자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행위자 대상 교육과 상담을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상황에서 원가정으로 돌아간 피해아동에게 되풀이 되는 학대를 막는 데는 제도적인 뒷받침만큼이나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등 통합적 복지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업무에만 매달려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업무만 감당하기에도 벅차죠. 상담원들이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A 상담원 —

숫자로 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55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4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관할 시·군 수 평균



11~14시간

상담원 하루 평균
근무 시간



36%

전년 대비 아동학대 신고
증가 비율



57.7건

상담원 1인당 연간
담당 아동학대 사례 수



37개

학대피해아동
그룹할 수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준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거나 뒷받침하는 연구로도 이어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굿네이비스는 국내 아동보호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실제 아동학대예방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례관리 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개소한 굿네이비스 아동권리연구소를 통해 그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등 실천 연구와 정책 분석·개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는 현장조사를, 민간 영역에서는 가족기능 강화 등의 사례관리 업무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굿네이비스는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굿네이비스 아동권리사업본부 김정미 본부장 —

아동학대예방의 시작은 우리 모두의 관심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노력과 활발한 연구 활동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중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굿네이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도 11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아동학대예방 주관을 맞아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현장을 지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 연구와 제도 개선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홍원표 / Good Neighbors

출처 :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2015.9.22.), 아동보호전문기관 실태조사

글, Mohammad Al Imran Monju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



© 김성준 / Good Neighbors

또 다른 기적을 꿈꾸는 동행

저는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몬주’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20여 년을 함께한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인생의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고마운 친구, 굿네이버스를 소개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저는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 지부의 도움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학용품 등 공부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받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는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굿네이버스와의 인연은 고등학생이 된 이후 더욱 두터워져, 2005년부터 굴산 지역개발사업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좋은 계기가 되어, 저는 지금 방글라데시 지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1 1998년 방글라데시 지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몬주(2줄 왼쪽에서 두 번째)
- 2 몬주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던 결연서비스 부장 프란시스와 함께



결연아동 가정에 방문해 상담하는 몬주의 모습

결연아동과 후원자를 잇는 다리

1996년에 설립된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 지부는 굿네이버스 전체 35개 해외 사업국 중 큰 규모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이곳 ‘결연서비스 부서’에서 결연아동과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도움이 아동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동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한국에 있는 후원자와 결연아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글라데시에는 여전히 빈곤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 속 열망을 알기에, 저의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복, 이제는 제가 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 명의 결연아동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 결연아동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아동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굿네이버스의 지원으로 다시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동과 가족들이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를 만난 순간, 이미 제 꿈은 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의 도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아직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굿네이버스가 제 인생의 기반을 마련해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굿네이버스를 통해 아이들 마음 속에 행복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예전의 저를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방글라데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이 아동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몬주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 지부에서 몬주는 배려심 많고 성실한 직원입니다.”

— 결연서비스 부서 매니저 킬리온 —

탄자니아 '화개장터'에서 만나요

최근 내전을 피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난민들은 새롭게 정착한 국가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6년 설치된 탄자니아 나루구수 캠프. 이곳의 난민들 또한 지난 19년의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불청객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난민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들의 소득증대와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장'을 열었습니다.



- ① 기존의 물물교환 장터
- ② 나루구수 난민 캠프 인근에 새롭게 설치된 시장
- ③ 시장 개장식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난민, 탄자니아 주민 및 관계자들
- ④ 난민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장 운영위원회

잊혀져 가는 나루구수 난민 캠프

쿠데타와 내전 등을 피해 온 약 6만 6천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탄자니아 나루구수 난민 캠프. 난민들에게는 오래된 삶의 터전이 되었지만 세상의 관심에 서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나루구수 캠프의 난민들은 대부분 UN기구에서 제공하는 식량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의 난민 통제 정책으로 캠프를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난민들의 생활 모습은 처음 탄자니아에 발을 디뎠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난민들에게는 구호 물품뿐 아니라 과일, 채소 등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생활용품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교환할 물건을 들고 캠프 인근 공터로 나온 난민들. 그들은 물건 사줄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보관할 장소도 없어 비라도 내리면 물건이 망가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난민에게는 자립, 주민에게는 지역 경제 발전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지부는 이러한 난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 탄자니아 정부와 손을 잡고 난민자립지원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난민 캠프 인근 완충구간*에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게 될 난민, 캠프 인근에 거주하는 탄자니아 주민들과 힘을 모아 건물과 가판대, 물품 창고, 사무실을 건축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구호 의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현금/바우처 프로그램(Cash/Voucher transfer program)'을 진행해 구호 식량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지역주민을 잇는 '화개장터'

시장은 무엇보다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던 난민과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합니다.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지부는 난민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장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회계 교육과 업종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후에는 직업훈련학교와 소득증대센터를 개소해 난민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처럼 난민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희망을 사고 파는 시장. 이곳이 나루구수 난민 캠프와 탄자니아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Interview



"시장이 생겨 매우 기쁩니다. 시장은 난민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난민과 기존 탄자니아 지역주민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시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바움브와 빈 셀레마니 -



"나루구수 캠프 난민들과 지역주민들은 지난 19년 동안 오늘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난민들을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장은 두 커뮤니티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카슬루 지역사무소 아마 아시미 할가트너 -

* 탄자니아 정부는 난민들의 장기 정착에 따라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합의를 통해 4km이 내 거리에 완충구간(Buffer Zone)을 형성하여 난민-지역주민 간의 왕래를 허락하고 있다.



①



②



③



① 글로벌 체험전 행사장 입구 ②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들고 아프리카 아동의 하루를 체험하는 아이들 ③ 영상 편지를 보내는 유일옥 회원의 자녀 이윤서, 이에서 양 ④ 체험전에 참여하고 있는 홍지민, 홍지유, 조윤재 학생 ⑤ 부스 체험 인증 스탬프를 기다리는 아이들 ⑥ 재난구호 부스 안내를 맡은 배우 진세연 씨



⑤



⑥

Let's change!

몸으로 체험하고 영상 편지로 응원해요

소외된 이웃의 일상과 굿네이버스 해외구호개발사업을 체험하고 영상 편지를 보내는 글로벌 체험전 'CHANGE-편지, 그리고 기적'. 식수위생, 해외교육, 보건의료, 재난구호 등의 주제로 구성된 부스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kg 넘는 벽돌 지계를 들어보고 아동노동 반대의 마음을 담아 두더지 게임을 하며 지구촌 친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시간. “하나씩 체험하면서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 친구 생각이 났어요!” 장은지 회원(정덕초 6학년)은 후원하고 있는 결연아동을 떠올리며 영상 편지를 쓰기 위해 디지털 우체통으로 향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직접 보고, 만들고, 듣고, 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참여해 가정과 교실에서 나눔을 이야기했던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체험으로 나눔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굿기 운동’에서부터 2009년부터 시작된 ‘희망편지쓰기대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민의 나눔 실천을 이끌어온 굿네이버스. 2015년, ‘MBC나눔’과 함께 새로운 좋은 변화를 위한 글로벌 체험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상암문화광장에서 약 1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한 ‘CHANGE - 편지, 그리고 기적’을 소개합니다.

모여라! 체인저스(Changers)!

스크린 속에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어벤저스’가 있다면, 글로벌 체험전에는 전세계에 희망을 전하며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인저스’가 있습니다. 이번 체험전이 더욱 뜻 깊었던 이유는 참여 시민들뿐 아니라 배우 진세연 씨, 서우 씨, 굿네이버스 회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체인저스’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차드에 다녀온 배우 진세연 씨는 재난구호 부스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바자회에서 자신의 애장품을 판매했습니다. 굿네이버스 회원들이 준비해 더욱 특별했던 바자회 ‘더 착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배우 서우 씨도 프리허가로 동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프리카 산모와 아동들을 향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고이라 홍보대사, 배우 진세연 씨와 서우 씨의 해외 봉사활동 내용은 12월 중 MBC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체인저스’가 되는 그 날까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는 굿네이버스, 바로 여러분의 나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Interview

“해외구호개발사업을 후원하고 있는데 가족들과 직접 체험하면서 아프리카 현실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어요. 영상으로 만난 아이들에게 힘내라는 영상 편지도 함께 남기고, 여러모로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유일옥 회원 -

“〈목마를 없는 세상〉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 마시기 위해 4시간이나 걸어야 하는 루스를 위해 열심히 식수 펌프를 밟았어요. 굿네이버스를 통해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도 아껴 쓰고 루스와 같은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 줄 다른 방법도 더 찾아볼 거예요.”

- 홍지민, 홍지유, 조윤재 학생 -



이달의 '굿네이버스'

글: 컨텐초기획팀 박후정

나눔의 시작, 행복의 시작

한창 사회생활에 전념할 20대 후반, 갑작스레 진단 받은 신장염. 농사짓는 노부모님께 의지해야 했던 날들은 이병운 회원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8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찾아온 신장 이식 수술의 기회와 주변의 도움은 '마음의 빛'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빛'을 갠게 된 이병운 회원. 그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충청남도 청양C로 달려갔습니다.

Q. 어떤 계기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셨나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나눔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투병 생활 중에는 건강도 형편도 안 좋다 보니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수술 받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무래도 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쌓였던 '마음의 빛'을 청산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SNS에 올린 결연아동 사진을 보게 됐어요. 친구가 '우리 딸'이라며 올린 아프리카 아이를 보고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매월 3만 원으로 아이 한 명이 자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말에 이거구나 싶었죠.

Q. 8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스물 일곱 살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이병운 씨는 가장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지병도 없고 유전적인 소인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온 병이니까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불치병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죠. 2~3일에 한 번씩 혈액 투석을 해야 했어요.

2000년부터 투병을 시작해 2003년에 신장이식 신청을 등록해놨었는데, 2008년에서야 기회가 왔어요.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희망이 생겼구나' 생각했지만, 투병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일은 꿈도 못 꾸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고민 끝에 군청과 신장협회에 문의했는데 흔쾌히 도움을 주셔서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장기를 기증한 분이 없었다면, 그리고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곳이 없었다면 아마 전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해외아동 1:1결연 후원에 이어 최근 국내 아동권리보호사업에 후원을 시작하며 국내 아동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병운 회원. 항상 갖고 싶었던 '마음의 빛'이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마음의 빛'이 되었습니다.

Q. 회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어떤 것인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나도 도울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정말 특별한 것은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삶의 작은 변화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나눔은 어떤 계기가 찾아와 해야겠다 마음 먹을 때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다들 나눔에 대한 생각을 막연히 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선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나눔이라는 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 ① 충청남도 청양C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운 회원
- ② 이병운 회원이 후원하는 르완다 결연아동 솔랑게(4세)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다



❶ 손담비 씨와 아홉살 어린 가장 미카 ❷ 우물 파는 소년 엘리아스와 이지훈 씨 ❸ 김정난 씨와 우등생 세키나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소설가 루쉰은 <고향>에서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 굿네이버스와 동행한 손담비 씨와 이지훈 씨, 그리고 김정난 씨가 전하는 특별한 희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Q. 이번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동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동이 있나요?

손담비 : 저는 탄자니아 도도마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아홉 살의 어린 가장, 미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콜레라로 아버지를 잃은 미카는 장티푸스에 걸린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묵묵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틀 동안 굶어 몹시 허기진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구한 바오밥 나무 열매를 여동생에게 흔쾌히 양보하던 미카의 의젓한 모습에서 오히려 더 배우고 왔습니다.

이지훈 : 탄자니아의 찰린제 마을은 사나운 모래 바람과 오염된 물로 인해 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케빈(10세) 역시 눈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뛰노는 것이 힘들 정도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초기에 치료만 잘 받았더라면 금세 나을 수 있는 병이었다는 의사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정난 : 니제르는 오랜 기근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영양실조 치료센터에서 만난 생후 12개월의 디아브리는 중증 위험 단계로, 아이를 안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뼈가 드러날 듯 앙상한 몸, 초점을 잃은 눈, 힘겹게 숨을 이어가는 모습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굿네이버스 니제르 지부의 모바일 클리닉을 통해 만난 아이들도 기억에 남아요.

Q. 희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손담비 : 희망이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탄자니아에서 만난 기븐(13세)은 팔다리가 휘어 있고, 다리가 등에 거의 붙은 채 태어났다고 해요. 처음엔 설 수도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기븐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단 한 번도 기븐을 포기한 적 없는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기븐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전해 준다면 그토록 원하는 축구선수의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이지훈 : 희망이란 ‘가능성’입니다. 만자세 마을은 180여 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지만, 마을 입구부터 빼곡히 들어선 200여 개의 우물은 주민들에게 물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아스(10세)는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우물을 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옆 마을로 물을 구하러 간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엘리아스에게 우물은 필요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마지막 희망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했습니다.

김정난 : 희망이란 ‘꿈’이 아닐까요? 어릴 적 녹내장을 앓은 후, 후유증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세키나(11세)란 아이를 만났어요. 공부가 가장 재밌다는 이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노트와 필통이 들어 있는 작은 비닐봉지였는데요. 어쩌나 소중한지 언제나 꼭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꿈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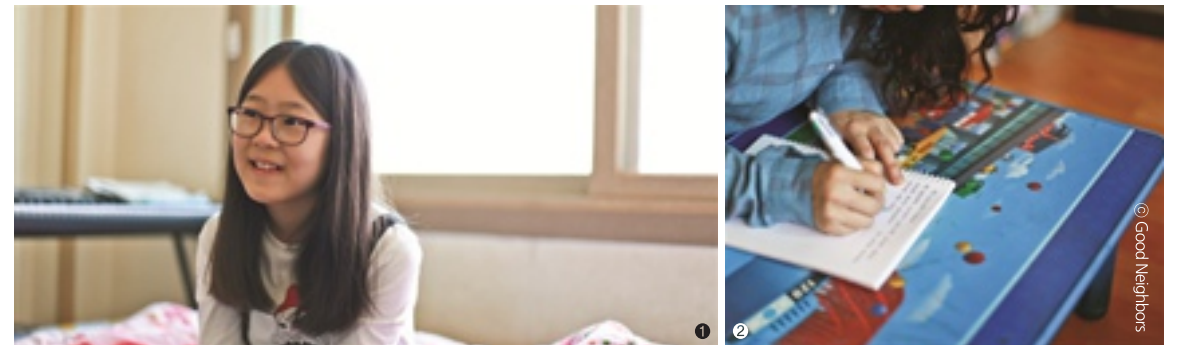
SBS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굿네이버스는 2009년부터 희망TV SBS의 협력 NGO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5 하반기 희망TV SBS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 간 방송됩니다. 이번 생방송에는 레이먼 김, 이원일 등 스타 세프가 희망 도시락을 전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울지마



엄마

지난 여름 은주(가명, 12세)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진단을 받았다. 갑작스레 찾아온 은주의 병은 둘이서 곳곳하게 지내 왔던 모녀에게 버거운 현실이었다. 은주는 잦은 빈혈, 복통,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자주 찾게 되었고, 엄마는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엄마가 우는 게 제일 싫다고 말하는 은주. 오늘도 은주와 엄마는 서로를 위로하며 기적을 기다린다.



- 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은주
- ②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쓰게 된 엄마

은주의 검색어, ‘골수이식수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운 은주는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 대신 방에서 보낸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친구들과 운동장을 마음껏 뛰고 있었을 시간에 은주는 만화를 그리곤 한다. 커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은주. 인터넷으로 예쁜 그림도 찾아보곤 하는데, 자신의 병명을 알고 난 뒤로부터 골수이식수술이란 단어도 늘 같이 검색하게 되었다.

은주는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않는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 힘들고 무서울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아파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말하는 은주는 엄마를 먼저 위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딸이다.

엄마의 편지

은주 엄마는 아픈 은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일할 때면 어린 은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 돌보지 못해 아프게 된 것은 아닐까...”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매주 해야 하는 채혈과 수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괜찮을 거야’라는 위로밖에 해줄 수 없다. “전부 다 미안해요. 형편은 더욱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항상 곁에서 아픈 은주에게 힘이 돼 주고 싶어요.”

기적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은주와 엄마는 은주의 병이 깨끗이 낫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언젠가 은주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아픈 게 다 나으면 엄마랑 수족관도 가고 소풍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세요. 사랑해요.”



1교시 수업만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은주

* 혈소판, 적혈구 및 백혈구 등 세 가지 혈액 세포가 모두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는 난치성 질환



후원문의 1544-7944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1-149844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이웃의 이야기, 그 후

화재로 타버린 부엌 대신 집 앞 마당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소녀,
다은이(가명, 13세). 지난 '좋은아웃' 144호 '이웃의 이야기'에 소
개되었던 다은이의 소식을 전합니다.

© 김성균 / Good Neighb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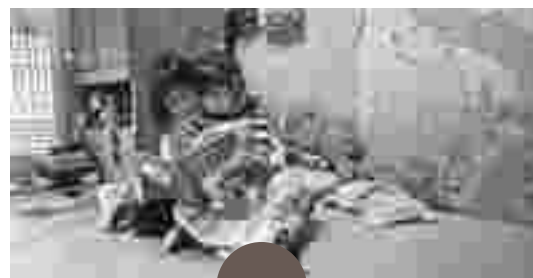
다은아! 밝게 웃으렴

지난 6월, 다은이의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책상이 들어오자
다은이와 동생 소은이는 집안 곳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화재로 인해 차마
와 부엌이 타버린 낡은 집에서 매일 겨울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다은이. 좋은 이웃과 지역사회
의 도움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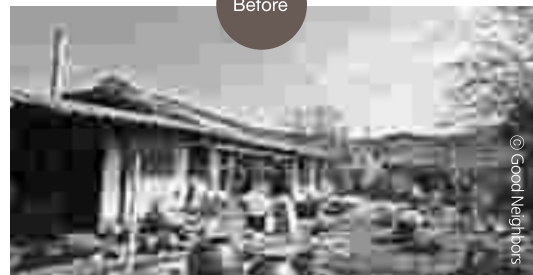
“집도 멋있게 지어주시고 제가 갖고 싶었던 책상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
하는 다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선물 받은 하늘색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는 다은
이의 미래를 좋은 이웃과 함께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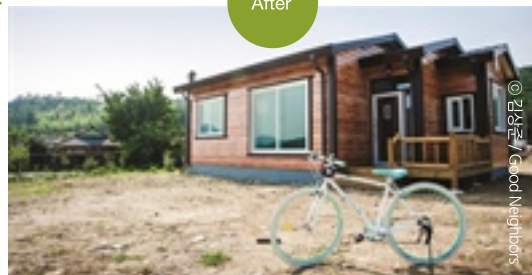
다은이의 미소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Before



After



© 김성균 / Good Neighbors

give store

굿네이버스 나눔 쇼핑몰 -

따뜻함.

공기에 한기(寒氣)가 서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두터운 외투 사이로 스미는 바람만큼이나

마음을 더 웅크리게 되는 날들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자.

수고한 하루의 땀방울을 닦아내고

녹록치 않을 내일의 아침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자.

그렇게 준비한 기부스토어의 온기 가득한 나눔 상품.

YOU MAKE ME WARM.

모두의 일상에 온기(溫氣)를 더합니다.

진심만을 엮어 만든 이 나눔 상품이

당신의 일상에 따뜻함을 전합니다.

아이의 하루에는 희망을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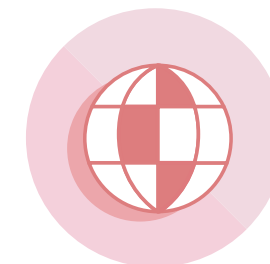
YOU MAKE ME WARM.

굿네이버스 기부스토어

YOU
MAKE
ME
WARM



• it •



• makes the world •



• better •

이번 겨울

기부스토어가 여러분의 일상에 **온기**를 더합니다.

마음 **따뜻한 쇼핑**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하세요.

12월 1일 기부스토어의 연말 나눔 상품,
YOU MAKE ME WARM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www.givestore.kr / 1599-7973

(기부스토어 운영시간 10:00~17:00)

기부스토어 제품의 수익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국내외 아동들이 빈곤, 질병 등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본부 소식

2015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 참석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단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최상위지위 NGO 자격으로 참석해 주제토론 회의에서 다른 NGO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제7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시상식 진행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전국 각 시도본부별로 제7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약 228만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대회 총 20명과 지역대회 총 2,07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동권리연구소 개소 및 이봉주 교수 연구소장 위촉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아동권리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연구소를 개소하고, 15일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연구소는 앞으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세계시민 양성 업무협약 체결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경자)와 함께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시립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권리나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제1호 발간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아동권리 관련 이슈를 생성하고 아동권리 보장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아동권리 이슈포커스(Children's Rights Issue Focus)> 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재난 상황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생애 최고의 날 캠페인 리뉴얼 오픈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 기념일 기부 캠페인 '내 생애 최고의 날'을 리뉴얼 오픈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후원나무를 입고 SNS 친구들과 함께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세프 레이먼 김과 배우 김지우 부부가 캠페인 홍보에 함께했다.

헨리 팬클럽, 1천만 원 상당 후원물품 기부



슈퍼주니어M 헨리 팬클럽이 지난 10월 11일 헨리의 생일을 맞아 1천만 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우리 단체에 기부했다. 전세계 16개 국가의 팬들이 후원한 물품은 우리 단체 타지키스탄 지부를 통해 빈곤가정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공헌 소식

패션쇼핑몰 다홍, 자선바자회 기금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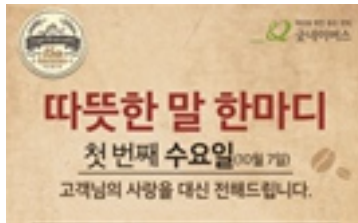
패션쇼핑몰 다홍(대표이사 이동환)은 지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단체와 함께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다홍에서 후원한 여성의류를 판매하여 발생한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국내외 빈곤가정을 위해 사용된다.

(주)버즈빌, 사회공헌 협약 체결



(주)버즈빌(공동 대표이사 이영호, 이관우)은 지난 9월 1일 우리 단체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주)버즈빌은 잠금 슬라이드 기부 어플을 개발하여 출시할 예정이며, 어플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우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엔젤리너스커피, '따뜻한 말 한마디' 캠페인 실시



엔젤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는 10월부터 12월 까지 3개월간 우리 단체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오렌지 필 소곳' 구입 시 한잔 당 500원의 기금이 적립되며, 적립금은 우리 단체에 기부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주)알리안츠생명, 사회공헌 페스티벌 진행



(주)알리안츠생명(대표이사 이명재)은 지난 9월 24일 우리 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15 사회공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빈곤가정아동지원 캠페인과 나눔 공원이 진행되었다.

(주)대교, 나눔콘서트 수익금 전달



(주)대교(대표이사 박수완)는 지난 10월 2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나눔 콘서트 수익금을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의료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대교는 아프리카 빈곤가정아동으로 구성된 축구팀 'FC HOPE'를 지원하는 등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희망나눔학교 팀 프로젝트 'Make a Dream' 음반 발매



희망나눔학교 팀 프로젝트의 디지털 싱글 음반 'Make a Dream'이 발매되었다. 발매된 음반은 지난 여름 희망나눔학교의 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된 아동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후원과 '위너뮤직'의 재능기부로 발매되었다.

착한소비 캠페인 GOOD_BUY 오프라인 홍보 진행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상암 MBC 신사옥 광장에서 열린 'DMC페스티벌'에 참가해 착한소비 캠페인 GOOD_BUY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며 착한소비 캠페인 GOOD_BUY에 대해 알렸다.



해외지부 소식

타지키스탄 지부, 재난 피해 긴급구호 진행



타지키스탄 지부(지부장 이병찬)는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르셀 지역에서 긴급구호를 진행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의 98개 가구 620명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주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5만 달러를 지원받아 구호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냐 지부,
무쿠루 지역 화재 및 폭우 긴급구호 진행



케냐 지부(지부장 손수진)는 지난 3월 화재와 5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무루쿠 지역주민 2,355가구 11,775명과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긴급 구호를 진행했다. 구호물품을 배분하는 한편,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했다.

차드 지부,
교사 역량강화 위한 연수회 진행



차드 지부(지부장 고봉청)는 지난 9월 7일부터 9일 까지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회를 진행했다. 차드에서 처음 진행된 이번 교사 연수회는 14개 지역의 교사 174명이 참여해 차드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과테말라 지부,
협동조합 워크숍 진행



과테말라 지부(지부장 이재춘)는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소득증대사업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부 및 사업장 소득증대 담당직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지부
소식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 진행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일웅)은 지난 9월 25일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나눔을 진행했다. 수원지구 원예농업협동조합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빚은 송편 1,500개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43가정에 전달했다.

경주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경주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성찬)은 지난 8월 31일 착한상회(대표 홍창한)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상회는 홈페이지 개선을 기념해 쌀 200kg를 기부했으며, 빈곤가정아동에게 매월 200kg 이상의 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좋은마음센터 경기부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좋은마음센터 경기부천(센터장 김민애)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가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좋은이웃쉼터 아동과 문화체험 진행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진묵)은 지난 9월 12일 좋은이웃쉼터 아동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 오선월대에서 '특별한 하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별한 하루'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쉼터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은 유아교육전문위원과 짝을 이루어 활동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가족캠프 진행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류경희)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We together'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아동과 가족 26명은 긍정적인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간담회 실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은 지난 8월 28일 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 천안지원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상담교육 명령을 받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진행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완진)은 지난 8월 12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제2회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839명이 참여해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 유관기관 워크숍 진행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은 지난 10월 8일 지역 내 아동학대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복지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례발표와 더불어 토론을 통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좋은마음센터 광주서부,
광주동운초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좋은마음센터 광주서부(센터장 배준열)는 지난 9월 25일 광주동운초등학교(교장 안영숙)와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부모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좋은마음센터 대구동부,
20개교 연합운동회 진행



좋은마음센터 대구동부(센터장 류현희)는 지난 8월 13일 희망나눔학교 참여 20개교의 초등학교 및 학부모와 함께 연합운동회 '우리 학교 예체능'을 진행했다. 학부모 봉사단이 준비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구성됐다.

좋은마음센터 대구서부,
지구촌 나눔 캠프 진행



좋은마음센터 대구서부(센터장 조은승)는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2회에 걸쳐 17개교 219명의 아동들과 함께 지구촌 나눔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구촌 친구들의 삶을 체험했다.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가정 후원물품 전달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옥재)은 지난 9월 11일 대구달서우체국(국장 최원열)과 함께 추석을 맞아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대구달서우체국은 물품 지원 외에도 영화관람, 우체국건강 등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문화체험을 지원해왔다.

부산동부아동권리지원센터,
'2015 유니브엑스포 부산' 참가



부산동부아동권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지원)는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된 '2015 유니브엑스포 부산'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홍보보스를 운영해 동아리 활동에 대해 알렸다.

좋은마음센터 경남중부,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좋은마음센터 경남중부(센터장 강성주)는 지난 9월 7일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구필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동·부모·교사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한 해 동안 국내외 빈곤가정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해 안전하고 간편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방법
하나.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24시간 365일 출력 가능!
www.goodneighbors.kr

로그인 후 '나의후원' 접속 → 온라인출력 → 기부금영수증

*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록 및 문의 : 회원상담센터 1544-7944



방법
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 2015년 12월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6년 1월 중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 2015년 12월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회원님께서서는 회원상담센터(1544-7944) 혹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방법
셋.

회원상담센터
1544-7944

* ARS서비스, 상담원 연결을 통해 팩스 발급 및 우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TIP

1.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정확하고 투명한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 됩니다.
 2. 기부금(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3.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은 세액 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9조의 4)
- 문의 : 회원상담센터 1544-7944 / 연말, 연초에는 전화량이 많아 회원상담센터의 응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굿네이버스 회원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굿네이버스는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어겠습니다.

기간 : 2015년 11월 6일 ~ 11월 20일

참여방법 :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 설문조사 이메일 및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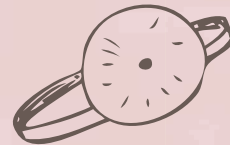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에 참여하신 회원님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트콘을 선물로 전송해드립니다.

©김포미 / Good Neighbors

결연, 그 행복한 변화

- 결연 후원으로 꿈을 이룬
의대생 우짚(21세) 이야기 -

해외아동1:1결연 후원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닐 수 없었는데 결연 후원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의대에 다니며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후원자님처럼 굿네이버스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 방글라데시 결연아동이었던 우짚 호세인 -

해외아동 1:1결연 후원신청 ☐ 1명(월 3만 원) ☐ 2명(월 6만 원) ☐ 3명(월 9만 원) ☐ 기타 명(1명 결연 월 3만 원)

후원 신청자 정보

☐ 굿네이버스 회원이시면 체크해주세요!

회원명 (개인/기업)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남/여)

주소

E-mail

납입 방법(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와 신청자와의 관계 본인 / 가족 / 기타 ()

예금주의 출금동의 예 / 아니오(예금주 연락처:)

우편물 수신방법 ☐ E-mail ☐ 우편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회원명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 ☐ 예 (주민등록번호:) ☐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 등록 및 소식 제공,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7944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후원신청문의 1544-7944 / membership@gni.kr / www.goodneighbors.kr